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구조관계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노 보 람¹⁾ 은 선 민²⁾ 이 강 이³⁾ 김 은 영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을 이용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탐색하고,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아동패널데이터의 4~5차년도(2011~2012년) 885가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서로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3)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작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자기뿐 아니라 상대방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족 체계 안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상호 역동적 영향까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BK21 플러스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2B20152813529). 본 논문은 2016년 세계가정학대회(IFHE 2016) 포스터발표 논문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E-mail: zzbprss@snu.ac.kr)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4)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취업모가 증가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아동의 보육기관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 정책과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유아들의 보육기관 진입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머무는 시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5). 유아기 아동의 생활에서 보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들이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또래관계는 일차적이고 수직적인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갈등과 협력의 경험을 제공하며(Berndt & Ladd, 1989), 이를 통해 유아들은 사회적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효과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유아기 아동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지적되고 있는데(Rubin, Bukowski, & Parker, 1998), 특히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아개념 및 행동양식은 사회적 관계의 초석이 되며, 이후의 발달을 예견하므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최혜영, 신혜영, 2008; Gifford-Smith & Brownell, 2003; Ladd & Coleman, 1993).

유아기 아동은 놀이를 매개로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가는데(Eckerman, Whatley, & Kutz, 1975),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호작용 특성을 나타낸다(김희태, 김정림, 이임순, 남연정, 2014). 긍정적 놀이상호작용을 통해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사회적 유능감을 경험하게

되며,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음으로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간다(이성경, 성정숙, 1998; Bishop & Inderbitzen, 1995). 하지만 놀이에서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을 보이거나 친구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놀이상호작용 특성을 가진 유아들은 또래로부터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Buhs, 2005). 또래와 부적응적 관계를 이어가는 아동은 우울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공격성, 또래괴롭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위험이 증가한다(정지나, 김지현, 2011; 최현미, 2013). 즉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보육기관에서의 성공적인 적응뿐 아니라 사회적 능력을 획득하고 표현하기 위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Ladd, 1999; Parker & Ahser, 1987).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기질,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김희태 등, 2014; 황윤세, 2007), 부모의 정서 및 양육방식,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환경적 요인(한명숙, 2013)으로 구분된다. 특히 가정환경은 유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또래관계에 유능한 아동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조준오, 탁정화, 2015; Carson & Parke, 1996; Parke & Ladd, 1992). 부모-자녀 관계는 생애 최초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로,

부모는 유아가 또래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Ladd & Pettit, 2002).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역할에 집중한 선행연구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방식, 심리적 특성, 취업여부 등 어머니 개인 요인(김현령, 류수민, 2015; 유숙경, 2012)이나 어머니-자녀 기질의 조화적합성,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 등 어머니와의 관계(김용숙, 박지영, 2011; 허순영, 이경옥, 김영희, 2005)에 국한되며, 아버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Langlois & Downs, 1980; Updegraff, McHale, Crouter & Kupanoff, 2001)이다. 즉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과소평가된 아버지는 아동의 사회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므로(Lamb, 1975; Parke et al., 2004),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가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발달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Kerns, Contreras, & Neal-Barnett, 2000). 특히 또래관계에서 드러나는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특성은 부모의 행동과 동일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Parke & Bhavnagri, 1989). 부모의 온정적이며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조절 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준다(김신정, 김영희, 2007; 정선희, 2001; Morris et al., 2007). 또한 부모가 무조건 수용

적이고 과보호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걱정 수준의 규칙과 한계를 설정하는 경우, 자녀는 또래관계에서 더 유능하며,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 및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Denham et al., 2000). 반면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행동은 갈등상황에 대한 아동의 반응양식으로 내면화되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놀이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Clawson & Robila, 2001). 특히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유아의 사교성 및 협조성 등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홍계옥, 2001), 아버지의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강할수록 유아의 공격성, 불안, 두려움과 같은 비사교적 요소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own, McBride, Shin, & Bost, 2007; Shears & Robinson, 2005). 이와 같이 아동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독특한 역할을 조명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상호 간 역동성을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부모 양육행동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개인의 신념, 사고, 정서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소들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적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Belsky, 1987). 즉 따뜻하고 온정적인 행동으로 자녀를 대하기 위해서는 양육자 스스로가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핵가족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족지지체계의 축소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양육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켰다. 아버지의 경우 경제적 부양의 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인식이 남아있는 가운데, 실질적 양육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역할 인식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이인정, 김미영, 2014). 어머니가 전업모인 경우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오는 부담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손수민, 2012). 또한 취업모인의 경우에는 타인양육으로 인한 죄책감과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일·가정 양립의 상황에서 신체, 정서적 곤란을 호소하기도 한다(박정운, 장영은, 2013). 양육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부모가 짊어진 양육이라는 과업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취학 전 시기부터 더욱 심화된다(Kuczynski & Kochanska, 1990).

Abidin(1990, 1992)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이자 가족 맥락에서 발생하는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안지연, 1992; 윤정원, 2015; 이주옥, 2008). 즉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김기현, 강희경, 1997).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촉발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보다는 충동적이고 성인중심적인 양육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Crnic, Gaze, & Hoffman, 2005; Suchman & Luthar, 2001). 또한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Hassall, Rose, & McDonald, 2005). 즉 부모의 극심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의 변화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아동발달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ater-Deckard,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Gaze, 2004),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부모의 정서는 자녀에게 내면화되어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즉 사회적 상호작용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Isley, O'Neil & Parke, 1996; Rueger, Katz, Risser, & Lovejoy, 2011).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유발하여 아동의 적응문제에 간접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다(Creasey & Jarvis, 1994; Deater-Deckard, 1998; Guajardo, Snyder, & Petersen, 2009).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Creasey & Reese, 1996).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여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때야 비로소 유아들은 또래와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자로서의 긍정적 행동을 촉진시키므로,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과정 그 순간에 경험하는 직접적인 성격의 스트레스와 양육과정이 지속되면서 계속적으로 쌓이는 만성적 성격의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누적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에 주목하였는데,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양육스트레스가 가혹하고 둔감한 양육행동을 이끌어내고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Crnic et al., 2005).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가 유아인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Crnic et al., 2005; Gaze,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 및 자녀의 발달이 측정된 시점보다 앞서 측정된 양육스트레스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최근에 들어 양육자로서의 행동특성이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배우자 간 주고받는 영향 또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심리적 안정감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계는 주로 어머니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아버지 영향을 고려한 연구에서도 개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각각의 독립적인 영향만을 조명하고 있다(Ponnet et al., 2013). 그러나 부부와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일상의 많은 영역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타인 간의 관계는 양방향적이며 상호의존적이므로 한 쌍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다(문선희, 2015; 최효식, 연은모, 2014; Kenny & Cook, 1999). 특히 긍정적·부정적 정서, 결혼만족도,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특성은 배우자 간 높은 상관을 나타내므로(Murdock, Lovejoy, & Oddi, 2014), 관계적 수준에서 그 영향력을 검토해야 한다(이인정, 김미영, 2014). 또한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서도 상대방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Barnett, 2008).

지금까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부모는 상호의존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전달되는데(Murdock et al., 201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독립적 특성을 지닌 부부를 한 쌍으로 고려할 수 있는(Cook & Kenny, 2005)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호역동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에서는 자신의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이 스스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자기효과(actor-effect)와 상대방의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상대방효과(partner-effect)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Cook & Kenny, 2005). 가족체계 내 부부 간 상호의존적이며 역동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

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문선희, 2015; 손정연, 한경혜, 2015; 이인정, 김미영, 2014), 최근에는 APIM을 확장하여 부모가 상호 의존적으로 자녀의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있다(윤해옥, 최효식, 2016;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이러한 논의의 바탕으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하며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상호의존적으로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의 4차년, 5차년도(2011년, 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4차년도 아버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5차년도 아버지,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놀이방해, 놀이단절)이다. 패널에 포함된 가구의 자료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885가구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의 경우 아버지는 36세 이상 40세 이하의 비율이 44.9%로, 어머니는 31세 이상 40세 이하의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다.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계소득은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가 30.1%로 가장 높았다. 패널 대상 아동인 유아기 자녀의 성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 45.4%, 둘째 43.8%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따른 척도는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한국아동패널자료의 양육스트레스 문항을 사용하였다. 4차년도에 조사된 양육스트레스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치 값이 낮은 5문항을 제외한 총 6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는 아버지 .83, 어머니 .86이었다.

양육행동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및 권희경(1999)의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 (N = 885)

		부(%)	모(%)
연령	30세 이하	58(6.6%)	133(15.0%)
	31세-35세	320(36.2%)	459(51.9%)
	36세-40세	397(44.9%)	247(27.9%)
	41세 이상	96(10.8%)	32(3.6%)
	합계	871(98.4%)	871(98.4%)
	결측	14(1.6%)	14(1.6%)
학력	고졸 이하	244(27.6%)	265(29.9%)
	전문대졸	190(21.5%)	250(28.2%)
	대졸	361(40.8%)	329(37.2%)
	대학원 이상	87(9.8%)	39(4.4%)
	합계	882(99.7%)	883(99.8%)
	결측	3(.3%)	2(.2%)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	96(10.8%)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266(30.1%)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208(23.5%)	
	4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140(15.8%)	
	500만원 초과	126(14.2%)	
	합계	836(94.5%)	
	결측	49(5.5%)	
자녀성별	남	456(51.5%)	
	여	429(48.5%)	
	합계	885(100.0%)	
자녀출생순위	첫째	402(45.4%)	
	둘째	388(43.8%)	
	셋째 이상	95(10.7%)	
	합계	885(100.0%)	

연구를 기초로 구성된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양육스타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 6 문항과 통제적 양육 6문항 총 1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 재치 값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온정적 양육 5문항, 통제적 양육 4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을 온정적 양육행동으로, 통제적 양육을 한계설정 양육행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양육자의 온정성과 반응성 정도를,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아버지 .84, 어머니 .84,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는 아버지 .81, 어머니 .70이었다.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Fantuzzo 등(1995)과 최혜영과 신혜영(2008)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한국아동패널자료의 또래상호작용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을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으로 구성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놀이방해 13문항, 놀이단절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 값이 낮은 놀이방해 3문항을 제외하고, 놀이방해 10문항, 놀이단절 8문항이

표 2. 양육스트레스 문항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양육스트레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양육스트레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양육스트레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양육스트레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양육스트레스 5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양육스트레스 6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3. 양육행동 문항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온정적 양육행동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온정적 양육행동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온정적 양육행동 3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온정적 양육행동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온정적 양육행동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한계설정 양육행동 1	나는 아이가 어렵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한계설정 양육행동 2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한계설정 양육행동 3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한계설정 양육행동 4	나는 아이가 지켜야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표 4.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문항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놀이방해 1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놀이방해 2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놀이방해 3*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놀이방해 4	선생님에게 이른다.
놀이방해 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놀이방해 6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놀이방해 7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놀이방해 8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놀이방해 9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놀이방해 10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놀이단절 1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놀이단절 2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놀이단절 3	위축되어 있다.
놀이단절 4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놀이단절 5	다른 친구에게 무시당한다.
놀이단절 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놀이단절 7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놀이단절 8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주. *는 역채점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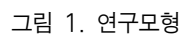
분석에 사용되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놀이방해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 놀이단절은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유아의 교사에 의해 평정되었기 때문에 보육·교육환경에서 유아가 또래와 놀이하며 보이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부모 평정보다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는 놀이방해 .87, 놀이단절 .80, 그리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전체 문

항 .87이었다.

3. 연구모형 및 자료의 분석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자료는 SPSS 및 AMOS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다분항으로 이루어진 변수들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변수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서 단위 가족 내 아버지와 어머니 간 차이가 있는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항측정모형(dyadic measuremen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의 평균, 분산, 공분산을 추정하였다. 넷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 API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은 본인이 보고한 자료와 상대방이 보고한 자료를 하나의 분석모형을 통해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통한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ok & Kenny, 2005). 다섯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모형에 종속변수로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설정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

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의 구조관계를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수의 특성과 상관관계

주요 연구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어머니($M = 2.65$)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M = 2.3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 = -10.48, p < .001$). 어머니($M = 3.61$)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버지($M = 3.57$)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M = 3.49$)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아버지($M = 3.2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 = -8.49, p < .001$).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평균은 놀이단절 1.55, 놀이방해 2.04로 놀이방해 상호작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를 벗어난 변수는 없었다. 다중공선성 및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0.6이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이하,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으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항측정모형(Dyadic measurement model)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TLI, CFI, RMSEA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4개의 경쟁모형인 비제약 모형(A), 요인적재치 제약 모형(B), 오차공분산 추가 모형(C), 그리고 요인적재치를 제약하고 오차공분산을 추가한 모형(D)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모형(D)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LI = .901, CFI = .922, RMSEA = .089) 아

표 5. 주요 변수의 특성

($N = 885$)

			$M(SD)$	Min	Max	왜도	첨도	$paired-t$
양육스트레스	부		2.35(.66)	1.00	4.50	.15	-.19	-10.48***
	모		2.65(.72)	1.00	5.00	.28	.05	
양육 행동	온정적 양육	부	3.57(.59)	1.40	5.00	-.10	.22	1.72
		모	3.61(.55)	1.60	5.00	-.06	.19	
	한계설정 양육	부	3.27(.67)	1.00	5.00	-.08	-.12	-8.49***
		모	3.49(.54)	1.25	5.00	-.22	.08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놀이단절		1.55(.45)	1.00	3.25	.83	.26	
	놀이방해		2.04(.46)	1.08	3.62	.33	-.30	
	전체		1.85(.39)	1.05	3.29	.49	.20	

*** $p < .001$.

표 6.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동일성 검증모형

Model	χ^2	df	p	TLI	CFI	RMSEA(90% CI)
모형(A)	513.424	53	<.001	.888	.901	.099(.091-.107)
모형(B)	518.342	58	<.001	.887	.901	.095(.087-.102)
모형(C)	408.536	47	<.001	.891	.922	.093(.085-.102)
모형(D)	413.682	52	<.001	.901	.922	.089(.081-.097)

표 7. 양육스트레스 측정동일성 모형의 추정치

	평균	분산
부 양육스트레스	2.21***	.55***
모 양육스트레스	2.53***	.70***
공분산(상관계수)	.17(.27)***	

*** $p < .001$.

버지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측정동일성 모형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2.21($p < .00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2.53($p < .001$)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통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다.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 유의한 정적 상관($r = .27$, $p < .001$)은 동일 커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분산은 .55($p < .001$), 어

머니 양육스트레스 분산은 .70($p < .001$)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하였다.

3.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상호의존성(APIM)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 이항측정동일성모형에 온정적 양육행동,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추가하여 측정동일성검증을 하였다. 요인적재치를 제약하지 않은 기저모형과, 온정적 양육행동의 요인적재치,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요인적재치를 각각 제약한 제약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8과 같이 기저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TLI = .900, CFI = .910, RMSEA = .053) 부분측정동일화 제약을 실시하였다.

표 8.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상호의존성모형(측정동일성 검증모형)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90% CI)
기저모형	1360.786	393	<.001	.900	.910	.053(.050-.056)
제약모형	1413.495	400	<.001	.897	.906	.054(.051-.057)
부분측정동일성 모형	1392.905	398	<.001	.899	.907	.053(.050-.056)

부분측정동일화 제약은 요인적재치를 한 쌍씩 제약하여 요인적재치를 제약한 모형들 간 적합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모형 적합도가 낮아지는 문항(온정적 양육 5번, 한계설정 양육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의 요인적재치를 제약한 모형이 부분측정동일성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최종 선택된 부분측정동일성 모형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이었다(TLI = .899, CFI = .907, RMSEA = .053).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자기효과를 살펴보면, 아버지($\beta = -.25, p < .001$)와 어머니($\beta = -.43, p < .001$) 모두 자신의 양육스트레스가 각각 자신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기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였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온정적 양육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beta = -.10, p < .05$) 자기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서 어머니와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 p < .01$).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버지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한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자기효과만 유의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온정적·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자기효과뿐 아니라 아버지의 온

표 9.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경로	<i>B</i>	β	<i>S.E.</i>	<i>C.R.</i>
자기 효과	부 양육스트레스 → 부 온정적 양육행동	-.18	-.25	.03	-6.28***
	부 양육스트레스 → 부 한계설정 양육행동	-.02	-.02	.03	-.50
	모 양육스트레스 → 모 온정적 양육행동	-.27	-.43	.02	-11.27***
	모 양육스트레스 → 모 한계설정 양육행동	-.05	-.10	.02	-2.32*
상대방 효과	부 양육스트레스 → 모 온정적 양육행동	-.03	-.04	.03	-1.25
	부 양육스트레스 → 모 한계설정 양육행동	-.04	-.06	.03	-1.38
	모 양육스트레스 → 부 온정적 양육행동	-.08	-.13	.03	-3.25**
	모 양육스트레스 → 부 한계설정 양육행동	-.01	-.02	.03	-.38

* $p < .05$. ** $p < .01$. *** $p < .001$.

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배우자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의 구조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수준(TLI = .899, CFI = .908, RMSEA = .050)으로 나타났다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의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검증 결과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2이며, χ^2 차이는 1.73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 5.991보다 작아 두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더 간단한 수정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다.

각 변인들 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beta = -.25, p < .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상대방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 = -.13, p < .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p < .05$).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은 낮아지고 이는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온정적 양육행동($\beta = -.43, p < .001$)과 한계설정 양육행동($\beta = -.10, p < .05$)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유의하였지만, 어머

표 10.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의 구조모형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90% CI)
연구모형	1458.848	451	<.001	.899	.908	.050(.047-.053)
수정모형	1457.112	453	<.001	.899	.908	.050(.047-.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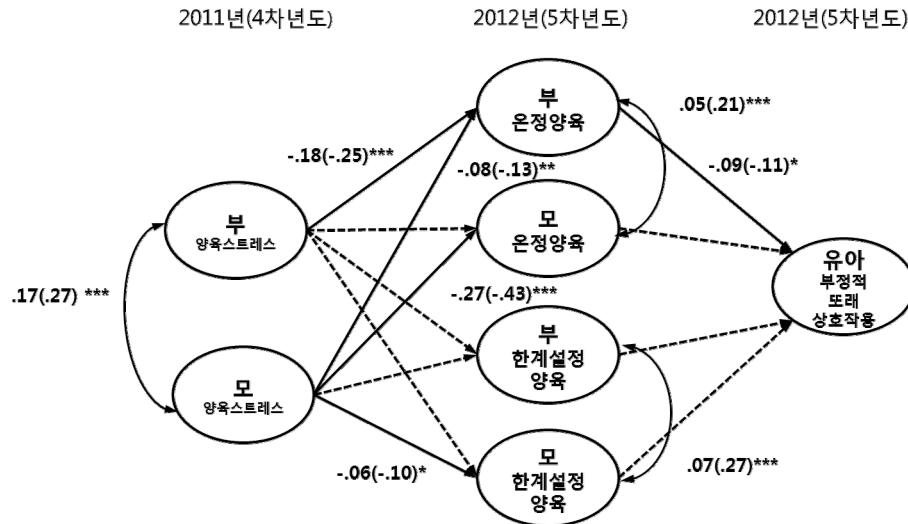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한계설정 양육행동,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의 구조모형
주. ()값은 표준화계수.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의 추정치

경로	B	β	S.E.	C.R.
부 양육스트레스 → 부 온정적 양육행동	-.18	-.25	.03	-6.28***
부 양육스트레스 → 부 한계설정 양육행동	-.02	-.02	.03	-.50
부 양육스트레스 → 모 온정적 양육행동	-.03	-.04	.03	-1.04
부 양육스트레스 → 모 한계설정 양육행동	-.04	-.06	.03	-1.38
모 양육스트레스 → 부 온정적 양육행동	-.08	-.13	.03	-3.26**
모 양육스트레스 → 부 한계설정 양육행동	-.01	-.02	.03	-.37
모 양육스트레스 → 모 온정적 양육행동	-.27	-.43	.02	-11.27***
모 양육스트레스 → 모 한계설정 양육행동	-.06	-.10	.02	-2.34*
부 온정적 양육행동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09	-.11	.04	-2.38*
부 한계설정 양육행동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07	.09	.04	1.92
모 온정적 양육행동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03	-.03	.04	-.73
모 한계설정 양육행동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06	-.06	.05	-1.15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검증 결과

경로	총효과(β)	직접효과(β)	간접효과(β)	95% 신뢰구간
부 양육스트레스 → 부 온정적 양육행동	-.18(-.25)*	-.18(-.25)*		
모 양육스트레스 → 부 온정적 양육행동	-.08(-.13)*	-.08(-.13)*		
부 온정적 양육행동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09(-.11)*	-.09(-.11)*		
부 양육스트레스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02(.03)**		.02(.03)**	.005 ~ .035
모 양육스트레스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02(.03)*		.02(.03)*	.001 ~ .042

* $p < .05$. ** $p < .01$.

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구조모형에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두 가지 간접효과 모두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거쳐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효과 및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거쳐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간의 상호역동적 관계,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유

아 세 가지 출처에서 나온 자료를 통합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쌍자료(dyadic data) 분석,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대해 부모가 서로 간 주고받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서로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가 보고한 양육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일반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했다는 연구결과(Gaze, 2004)와 일치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는 서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Murdock et al., 2014)와 그 맥을 함께한다. 즉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부관계에서 한 구성원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다른 구성원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아버지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아직도 자녀양육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남아

있어 어머니의 양육 부담이 더 높기 때문(이 인정, 김미영, 2014)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온정적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감소되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충동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더 높게 보였다는 연구결과(Suchman & Luthar,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연구결과(Anthony et al., 2005)와도 일치한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에서 받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자녀에게 규칙을 가르치는 훈육 상황 보다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 상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Kazak, 2004)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바람직한 아버지의 모습이 과거 엄격하고 훈육하는 아버지로부터 현대에는 자상하고 함께 놀이하는 아버지로 변화한 것(Sarkadi, Kristiansson, Oberklaid & Bremberg, 2008)과도 관련될 수 있다. 즉 오늘날 아버지에게 한계설정 양육보다 온정적 양육이 요구되기 때문에 온정적 양육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배우자인 아버지가 나타내는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자신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혹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야기한다는 연구결과(Murdock et al., 2014)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방 효과가 아버지 양육행동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준이 어머니에 비해 덜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Doherty, Kouneski, & Erickson, 1998; Lewis & O'Brien, 1987). 즉 상대적으로 어머니는 양육의 주체자로서 부여된 역할이 분명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그 정의가 모호하며, 양육참여 자체도 직업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elsky, Youngblade, Rovine & Volling, 1991). 따라서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의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친구, 원가족, 자녀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방인 어머니의 온정적,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이해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다. 즉, 어머니는 자녀양육에서 기대되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Crnic & Booth, 1991), 어머니의 구체적 양육실체인 양육행동에 대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어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하여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아버지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하여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상호의존적으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을 매개로 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유아의 부적응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Deater-Deckard, 1998)와 일치하고, 양육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Anthony et al., 2005; Crnic et al., 2005)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자녀발달에게 미치는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부각된 것은,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놀이맥락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놀이는 아버지-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참신하고 뛰어난 놀이성을 가진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놀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Lamb, Frodi, Hwang, & Frodi, 1983). 따라서 또래와의 놀이 맥락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상호작용 양상은 아버지와의 놀이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반대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유아기 자녀 발달의 주양육자로서 강조되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보고해온 많은 선행연구와 상반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예컨대 성별, 기질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부 간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상호의존적 영향을 고려할 때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정책이 요구된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역 육아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유아기 자녀를 둔 삼십대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 다정하고 자상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통해 온정적 양육행동의 역할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의존

적 관계, 그리고 그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였으므로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과 기질 등의 예측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유아기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다양한 예측 요인을 검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다변량 분석이 하나의 대상에게서 얻은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변인 간 상관이 과대평가 될 수 있는 제한점을 넘어서고자 패널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아버지, 어머니, 유아)를 모두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아버지 자신이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어머니 자신이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그리고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을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변인과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간 관계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상호의존성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가족 체계 내에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맺고 있는 역동성을 반영하였다. 즉,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자기뿐 아니라 상대방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족 체계 안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상호 역동적 영향까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용숙, 박지영 (2011).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능력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3(2), 21-34.
- 김현령, 류수민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9(2), 193-209.
- 김희태, 김정립, 이임순, 남연정 (2014). 유아의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 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34(2), 29-48.
- 문선희 (2015). 중년기 부부의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계 지각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커플자료를 이용한 자기(Actor)-상대방효과(Partner) 모델(APIM).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 157-175.
- 박정윤, 장영은 (2013).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159-172.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손정연, 한경혜 (2015). 베이비부머의 생애사건

- 경험이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한국노년학회지, 35(2), 491-507.
- 안지연 (1992).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일 연구-정상아 가족과 자폐아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숙경 (2012).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과 유아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원 (2015).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해옥, 최효식 (2016). 부모의 부부갈등, 결혼 만족도, 유아 발달 간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APIM 모형의 적용. 유아교육연구, 36(3), 358-379.
- 이성경, 성정숙 (1998). 유아의 또래간 인기도와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4, 131-147.
- 이인정, 김미영 (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 이주옥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81.
- 정선희 (2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나, 김지현 (2011).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유아의 공격성과 사회적 기술이 유아의 또래배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20(5), 983-992.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조준오, 탁정화 (2015). 유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기능성, 어머니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443-468.
- 최혜영, 신혜영 (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9(3), 303-318.
- 최현미 (2013). 유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 기질, 어머니와 애착, 유아-교사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33(5) 67-87.
- 최효식, 연은모 (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우울 및 양육태도 간 단기 종단연구 -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1(3), 253-279.
- 한명숙 (2013). 가정환경자극 및 모-자 상호작용과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관계구조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311-330.
- 허순영, 이경옥, 김영희 (2005).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아동의 문제행동. 놀이치료연구, 9(2), 1-17.
-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 아동학회지, 22(2), 181-194.
- 황윤세 (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Child Development*, 14, 133-154.
- Barnett, M. A. (2008). Interdependence of parenting of mothers and fathers of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561-573.
- Belsky, J. (1987).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ling, B.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83-498.
- Berndt, T. J., & Ladd, G. W. (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 Bishop, J. A., & Inderbitzen, H. M. (1995).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4), 476-489.
- Brown, G. L., McBride, B. A., Shin, N., & Bost, K. K. (2007). Parenting predictors of fa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Interactiv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d fathering quality. *Fathering*, 5(3), 197-219.
- Buhs, E. S. (2005). Peer rejection, negative peer treatment, and school adjustment: Self-concept and classroom engagement as mediating process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3(5), 407-424.
- Carson, J. L., & Parke, R. D. (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2217-2226.
- Clawson, M. A., & Robila, M. (2001).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play behavior. *Issues in education. Journal of Early Education and Family Review*, 8(3), 13-19.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reasey, G. L., & Jarvis, P. A. (1994).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velopmental functioning among 2-year-old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7(4), 423-429.
- Creasey, G., & Reese, M. (1996).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parenting hassles: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symptoms, nonparenting hassles, and child behavior

- proble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393-406.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42-1050.
-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 314-332.
- Denham, S. A., Workman E., Cole P. M., Weissrod C., Kendziora K. T., &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23-45.
- Doherty, W. J., Kouneski, E. F., & Erickson M. F. (1998). Responsible fathering: An over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277-292.
- Eckerman, C. O., Whatley, J. L., & Kutz, S. L. (1975). Growth of social play with peers during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1(1), 42.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H., Canning, S., & Deb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 Gaze, C. M. (2004). *Parenting stress over time: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Gifford-Smith, M. E., & Brownell, C. A. (2003).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Social acceptance, friendships and peer network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4), 235-284.
- Guajardo, N. R., Snyder, G., & Petersen, R. (2009).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practices, parental stress, child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8(1), 37-60.
- Hassall, R., Rose, J., & McDonald, J. (2005).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effects of parental cognitions in relation to child characteristics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6), 405-418.
- Hatfield, E., Cacioppo, J. T., & Rapson, R. L. (1994). *Emotional contag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sley, S., O'Neil, R., & Parke, R. D. (1996). The relation of parental affect and control behaviors to children's classroom acceptance: A concurrent and predictive analysi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1), 7-23.
- Kazak, A. E. (2004). Fathers' and mothers'

- parenting behavior and beliefs as predictors of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the transition to schoo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628-638.
- Kenny, D. A., & Cook, W. (1999). Partner effects in relationship research: Conceptual issues, analytic difficulties, and illustr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6, 433-448.
- Kerns, K. A., Contreras, J. M., & Neal-Barnett, A. M. (2000).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Greenwood Publishing Group.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0). Development of children's non-compliance strategie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78-408
- Ladd, G. W. (1999).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early and middle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333-359.
- Ladd, G. W., & Coleman, C. (1993).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Forms, features, and functions. In B. Spode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p. 57-76). New York: Macmillan.
- Ladd, G. W., & Pettit, G. S. (2002).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268-309).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Mahwah, New Jersey, London.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Lamb, M. E., Frodi, M., Hwang, C. P., & Frodi, A. M. (1983). Effects of paternal involvement on infant preferences for mothers and fathers. *Child Development*, 450-458.
- Langlois, J. H., & Downs, A. C. (1980). Mothers, fathers, and peers as socialization agents of sex-typed play behavior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1217-1247.
- Lewis, C. E., & O'Brien, M. E. (1987). *Reassessing fatherhood: New observations on fathers and the modern family*. Sage Publications, Inc.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Murdock, K. W., Lovejoy, M. C., & Oddi, K. B. (2014).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analysis of associations between affect and parenting behavior among couples. *Family Processes*, 53(1), 120-130.
- Parke, R. D., & Bhavnagri, N. (1989). Parents as manage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 241-259). New York: Wiley.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rke, R. D., Dennis, J., Flyr, M. L., Morris, K. L., Killian, C., McDowell, D. J., & Wild, M. (2004). Fathering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pp. 307-340). Hoboken, NJ: Wiley.
- Parke, R. D., & Ladd, G. W. (Eds.). (1992).

-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Routledge.
- Parker, J. G., & Asher, S.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Van Leeuwen, K., Bastait,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 276.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ed., pp. 619-700). NewYork: Wiley.
- Rueger, S. Y., Katz, R. L., Risser, H. J., & Lovejoy, M. C. (2011). Relations between parental affe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1(1), 1-33.
-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8).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7(2), 153-158.
- Shears, J., & Robinson, J. (2005). Fathering attitudes and practices: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Child Care in Practice*, 11(1), 63-79.
- Suchman, N. E., & Luthar, S. S. (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 285-315.
- Updegraff, K. A., McHale, S. M., Crouter, A. C., & Kupanoff, K. (2001). Parents' involvement i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665-668.

1 차원고접수 : 2016.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6. 11. 14.

최종게재결정 : 2016. 12. 02.

A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Negative Peer Interaction: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

No, Boram¹⁾ Eun, Sunmin¹⁾ Lee, Kangyi¹⁾ Kim, Eunyoung²⁾

¹⁾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utual dynamism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their effects on preschoolers' negative peer interaction. The authors used fourth and fifth year (2011-2012)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nd the participants numbered 885 households. Data were analyzed upon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APIM) model using the SPSS and AMOS programs. Concer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 significant negative actor effect between fathers' parenting stress and fathers' affective parenting behavior was identified.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also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affective and limit-setting behaviors. Moreover,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fathers' affective behavior, indicating a significant partner effect.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res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fathers' affective behavior, both of which were foun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negative peer interac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acknowledging mother and father as one dyad, and for considering parents' interdependent effects on their child's social outcomes.

Keyword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negative peer interacti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